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이사장 아시아인스티튜트

President, The Asia Institute
asia-institute.org



2018년 6월 27일

과학, 과학기술, 문화, 사회
특정 논점.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기술 의존 증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후를 파괴하는 악순환은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기술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다. 기술 변화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도 기술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답은 도덕적 행동(윤리학)과 존재의 본질(형이상학), 지식과 이해의 본질(인식론)에 대한 원칙을 신중히 고찰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지각변동을 겪게 된 순간, 철학은 지적 세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은 특히 위험하다. 컴퓨터 코드가 사회를 장악하고 우리 인생이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해 버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색엔진 때문에 우리가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설명해줄 철학이 사라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담은 인문학이 쇠퇴하고, 사회의 행동 주체였던 우리가 소비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지적 활동에 반감을 갖는 문화가 확산됐다. 그 결과 또 하나의 위험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과학과 기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경향이다.

이는 광고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제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콘텐츠는 분석적 기사가 아니라 광고다. 광고는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신기술의 마법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은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시될 뿐, 진실 탐구와의 연결 고리는 어디에도 없다. 기술에 대한 이해는 좌절되고, 오로지 신기함만이 남는다.

우리는 기술이 지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신기술(혹은 과거 기술의 새로운 조합)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그러나 이걸 기술의 시대일뿐, 과학의 시대로는 볼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과학기술'이라는 한 단어로 대충 묶어버리다 보니 별다른 고찰 없이 서로 다른 두 학문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과학은 과학적 과정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과학적 탐구를 이어가는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일반 대중은 물론 제도권 내에서도 과학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란 걸 알 수 있다.

폴 굿만(Paul Goodman)의 기고문 '기술이 인간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새로운 과학 연구 결과를 활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 윤리학의 한 갈래다."

기술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윤리적 원칙에 따라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기 포함된다. 반면에 과학은 가설과 끊임 없는 체계적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실 탐구다. 이를 기술과 혼동해선 안 된다.

진정한 과학 탐구를 위한 과학적 과정에서 인문학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과학적 과정은 무엇보다 강력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다양한 이론을 구상하려면 상상력을 통해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은 그 다음 문제다. 양질의 과학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면 황당할 지라도 다양한 이론을 상정해서 풀어내는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경우 우주는 어떻게 작동할까, 사물 안에서 광자는 어떻게 움직일까 등을 상상했기에 일상적 현상을 독특하게 풀어내며 이론물리학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의 논문을 보면 스토리텔링 혹은 소설과 닮은 면이 있다. 상상력에 기반한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 관행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보지 못했던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기술 및 상업적 소비문화에 대한 중독의 뿌리가 너무 깊기에 우리는 자신의 시야를 좁힌 사고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점진적 파편화와 기술로 인한 환경 파괴가 계속될 수 없기에 우리는 강제로라도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위기에 대한 답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익숙한 해결사에게서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오랜 시간 외면해온 옛 스승 '인문학'에서 다시 지혜를 구할 때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이만열) 대학교수



<학력>

- ~ 1997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언어문화학 박사
- ~ 1992 도쿄대학 대학원 비교문화학 석사
- ~ 1987 예일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경력>

- 현)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 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 현) 다른 백년 부원장
- 현) 아시아 인스티튜트
- 2013~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부교수
- 2011~2013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부교수
- 2007~2011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부교수
- 2010 표준연구원 자문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문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문관
- 2007~2008 충청남도청 자문관
- 코러스하우스 이사
- DYNAMIC KOREA 수석편집장
- 2005~2007 주미한국대사관 자문관
- 1997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부교수

<주요 저서>

-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2011. 2016.
-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2012.
-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2013.
- 지구경영. 흥익에서 답을 찾다. 2016.
-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2017.